주 일 예 배

오전11시 예배인도 이진우 목사

찬 양	곤한 내 영혼(464장) 나 어느 곳에 있든지(466장)	다 같 이
조용한기도	Prayer	다 같 이
찬 송	Hymn 23	다 같 이
기 도	Prayer	노용녀 권사
교회소식	Announcement	인 도 자
성 경	고린도후서 9:8-10	인 도 자
설 교	축복의 통로	이진우 목사
찬송과봉헌	Hymn 379	다 같 이
축 도	Benediction	이진우 목사

■ 다음주 기도 : 남관희 집사

예 배 와 모 임 안 내

주일1부 예배	**오전 11시**
주일2부 예배	**오후 3시(예정)**
수요성경공부	**매수 오후7시(예정)**
가정교회예배	**매주 금요일(예정)**

교 회 를 섬 기 는 이 들

목회사역	**이진우 목사(Rev. Jin W. Lee)**
행정사역	**박종갑 장로 남관희 집사**
선교사역	**서정길 권사**
양육사역	**윤지호 집사**

【자유교회 Vision 소개】

■ **자유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를 꿈꾸는 교회입니다. 모든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유일한 담임목자는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동역자입니다. 자유교회는 사람보다 예수님이 세상에 알려지길 원합니다. 교회의 행정과 운영에 있어서 때로는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식과 법을 고집할 것이며 실험할 것입니다.

■ **자유교회는**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교회를 꿈꾸는 교회입니다. 성경에서 교회란 늘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라는 뜻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즉 교회란 건물이나 제도가 아니라 구별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교회가 부패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교회 건물이 노후했다는 뜻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인 성도가 교회답지 못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예배를 통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Imago Dei)을 회복하기 위해 힘쓸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된 우리의 모습을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줄 것입니다.

■ **자유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하는 교회를 꿈꾸는 교회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명령은 교회가 지켜야할 지상최대의 명령입니다. 가깝게는 지역사회로부터 크게는 세계 각처에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 힘쓸 것입니다. 이를 위해 실제적으로 헌금의 50%를 선교와 구제 그리고 이웃과 지역을 섬기는 일을 위해 사용할 것입니다.

■ **자유교회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는 교회를 꿈꾸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 받은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믿는 자에게는 자녀의 권세를 회복케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율법의 저주로부터의 자유, 모든 두려움과 불안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세상 권세와 문화에 좌우되는 성도가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기 위해 힘쓸 것입니다.

2007년 1월 21일 제25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LIBERTY COMMUNITY
자 유 교 회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교회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하는 교회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는 교회

자유교회 Liberty Community Church

34617 8th Ave SW Federal Way, WA 98023
Tel (253)661-5436(fax), 227-1775
E-Mail: graceofjesus@comcast.net

금주의 말씀요약

우리 말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습니다. 옛말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 대부분의 수준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남이 잘되는 것을 보면 겉으로는 같이 기뻐하는 척 하면서도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것을 남이 누리는 것을 보며 속상하고 배 아파합니다. 사람들은 남이 어려운 일을 겪고 실패하면 위로하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진심으로 잘 합니다. 그러나 남이 잘되고, 남의 자녀가 성공하는 것을 보고 시기와 질투가 앞서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진심으로 같이 기뻐해 주지 못합니다.

이런 생각과 마음이 우리의 삶은 늘 그렇고 그런 시시한 삶으로 전락시키는 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남이 잘되고 성공하고 복 받는 것을 보면서 정말 진심으로 기뻐하고 남이 잘되도록 돕고, 성공하도록 돕는 것을 통해 위로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잘되고 복된 일이 넘쳐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촌이면 꽤 가까운 친척인데도 사촌이 땅을 사면 왜 배가 아플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곰곰이 생각하다보니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퍼 하는 사촌도 문제이지만 땅을 산 사촌에게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도 나에게 득이 될 게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배가 아픈 것입니다. 오히려 자랑만 하고 으스대는 꼴에 자존심만 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마 사촌이 땅을 사서 나에게도 조금 나누어 준다면 조금도 배가 아프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사촌이 땅을 살 때마다 좋아할 것입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우리교회가 빨리 부흥하고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부흥과 성장의 간절한 바램이 목사의 욕심이 되지 않기를 더욱 간절히 소원합니다. 목에 힘주고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더 많이 나누고 베풀기 위해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나누고 베푸는 일에 인색함이 없어서 우리교회의 부흥이 이웃에 배 아픈 일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고후9:8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교회와 우리교회를 섬기는 가정마다 정말 차고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넉넉함으로 풍성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복주는 일이 차고 넘치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한국에서는 교회가 마을에 들어선다고 하면 좋아하는 이웃 사람들이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교회가 들어서지 못하도록 데모까지 한다고 합니다. 인터넷에 기독교 관련 사이트 게시판을 들어가 보면 기독교에 대한 심한 욕설과 비난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이런 글을 접할 때마다 목사로서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는 세계교회 역사에서 찾아 볼 수 없는 복을 받았습니다. 이민 한인교회도 같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가 하나님으로 부터 복을 받기만 했지 받은 복을 세상에 나눠주는 일에 너무 인색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나라와 민족이 복을 얻게 하시길 원하시는데 교회는 세상의 덕만 보았지 세상에 덕을 주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심는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농부가 씨 뿌리기가 귀찮아 펑펑 놀았다면 추수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씨를 뿌리지 않았는데 거둘게 있다면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주시는 복이 아닙니다. 평생을 기다려도 씨를 뿌리지 않으면 쌀 한 톨 얻지 못합니다. 땅에 씨를 뿌려야 수확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이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 씨를 뿌리는 일을 주저했기 때문에 이제 교회는 세상에서 거두어 드릴 것이 없게 된 것입니다. 전도가 왜 안 되는지 아십니까? 씨를 뿌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씨앗을 뿌리지 않고 거두려고만 하니까 거둘 것이 없는 것입니다. 선교와 구제는 세상에 뿌리는 씨앗과 같습니다. 농부가 씨 뿌리는 것을 아까워한다면 거둘 것이 없는 것처럼 선교와 구제에 인색한 교회는 추수 때가 되어도 거둘 것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을 사는 존재입니다. 영원을 사는 존재답게 좀 길게 좀 넓게 세상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당장 우리교회에 아무런 득이 되지 않는 것 같아도 가을의 추수를 기다리며 봄에 씨를 뿌리는 농부의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기독교가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 한국이나 미국에 있어 세상에 대해 영향력을 가지고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기 교회의 일에만 집착하지 않고 자기 교회에 직접적인 이익을 주지 않는 선교와 구제에 힘쓰는 교회가 부흥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이십니다. 저는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너무나 근사하고 멋집니다. 멋지고 근사하신 하나님이 멋지게 쓰시는 자유교회 그리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유교회 소식】

1. 자유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실현되기 위해 힘쓰길 원하는 교회입니다. 기도와 전도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시다.
2. 신년 심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날자와 시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설교CD가 준비되어있습니다. 결석자나 우리교회의 비전을 공유할 동역 대상자들을 위해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우리교회에 맞는 예배처소를 위해서 기도 중에 있습니다. 비전과 사역을 공유할 수 있는 예배처소를 구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자유교회 예배에 참석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253) 661-5436, 227-1775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지난주 헌금통계

십 일 조:	$260.00	
감사헌금:	$80.00	
주일헌금:	$11.00	
특별헌금:	$110.00	**합 계: $461.00**

중보기도 제목

- 장애우를 돕는 밀알선교회를 통해 많은 장애우들이 장애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 선원선교를 위해 헌신하는 사역자들을 복주시고 저들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이 선원들에게 아름답게 전달되게 하옵소서.
- 북한의 땅에도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굶주려 죽어가는 어린이들이 없게 하옵시고 이를 위해 애쓰는 사역자들을 안전하게 도와주옵소서.